



즉시 배포용: 2020년 12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포워드 중소기업 임대 지원 파트너십 출범 발표

엠펙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스타트 스몰 싱크 빅, 뉴욕주 변호사협회 간의 민관 파트너십

코로나19로 인해 임대 조건을 재협상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임대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포워드 중소기업 임대 지원 파트너십(New York Forward Small Business Lease Assistance Partnership)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임대인에게 정보 및 무료 지원을 제공하여 당사자 모두가 상호 이익이 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뉴욕주 중소기업 및 임대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는 선택 사항입니다. 내년 동안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주 전역에서 수천 개의 소규모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강력한 경제의 중추이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업 퇴거에 대한 모라토리움이 현재 유효하지만, 이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은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뉴욕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엠펙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뉴욕주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및 스타트 스몰 싱크 빅(Start Small Think Big)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스타트 스몰 싱크 빅은 뉴욕 기반 비영리 단체인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위해 스타트 스몰(Start Small)은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 변호사 네트워크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 조건 변경을 원하는 상업 부동산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는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주 변호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으며, 추가적인 자원봉사 변호인 인력의 모집 및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임대 지원 파트너십](#) 웹사이트에는 임대 재협상 절차에 대한 정보와 중소기업이 코로나19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 구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재협상 시작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파트너십의 [신청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양식을 작성한 후, 자원 봉사 변호사 배정 예정 일정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배정이 완료되면 자원봉사 변호사가 신청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약속을 잡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커미셔너 대행이자 대표 겸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불행하게도 주 전역의 중소기업 소유주와 임대인들에게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스타트 스몰 싱크 빅 및 뉴욕 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우리의 목표는 생산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여 상업 부동산 임차인 및 임대인이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타트 스몰 싱크 빅 법률 프로그램의 Alex Stepick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및 뉴욕 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전례 없는 시기에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스타트 스몰 싱크 빅은 무료 법률, 재무 계획 및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 여성, 취약계층 및/또는 저소득층 기업 등으로 구성된 다양성 네트워크를 변호사 및 기타 높은 수준의 전문가와 연결합니다. 전문인력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무료로 기업의 법률, 재정,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무료 1:1 지원과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 Scott M. Kars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임대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체결한 임대 조건이 계속 적용된다면 지속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이것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는 기꺼이 기업과 임대인이 재협상에 나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 준비가 되어 있는 자원봉사 변호사 서비스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경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며, 우리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팬데믹과 관련된 상업적 퇴거를 막기 위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10월 20일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관련 상업 퇴거 및 담보권 행사에 대한 주정부의 모라토리움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팬데믹의 재정적인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상업 부동산 임차인 및 주택 담보 대출자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확대에 따라 상업 임차인 및 주택 담보 대출자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여 연체된 임대료 또는 주택 담보 이자 등을 처리하거나, 임대 기간을 재협상하고 다가오는 담보권 행사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의 노력을 더 확대하는 최신 지원이기도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10월 엠프아이어 스테이트 디지털(Empire State Digital)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선도적인 글로벌 이커머스 인에이블러를 통해 뉴욕주 기반의 중소기업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특별 솔루션을 제공하여 이들 기업이 온라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또한 뉴욕 포워드 대출 기금(New York Forward Loan Fund)은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 100,000 만 달러 규모의 운영 자금 대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